

고품격 클래식 스타를 만나다



11일 아시아문화전당
용재 오닐, 제레미 덴크 협연

리처드 용재 오닐, 임지영, 윤홍천 등 클래식 스타들의 공연이 이달 광주에서 펼쳐진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11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리사이틀을 연다. 공연 주제는 '환상곡'. ACC 슈퍼클래식의 4번째 시리즈로 펼쳐지는 이날 공연은 미국 피아니스트 제레미 덴크와 협연한다.

바흐의 '크로마틱 판타지와 푸가'로 시작해 슈만의 '비올라 환상 소곡집',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이야기 그림책'을 연주한다. 시어의 '머스그레브 In the Still of the Night'와 쾨지의 '번치 The Three G's'를 비올라 솔로로 선보이고, 힌데미트의 '비올라 소나타 4번'을 선보이며 대단원을 꾸민다.

제미동포인 리처드 용재 오닐은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비올리스트 최초로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고 '에미상', '에이버리 피셔 상'을 수상했다. 피아니스트 제레미 덴크는 '맥아더 지니어스 펠로우십', '에이버리 피셔 상' 수상자다.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1899-5566.

임지영 바이올리니스트와 매슈 리프먼 비올리스트는 바이올린과 비올라만으로 이뤄진 특별한 듀오 공연을 펼친다. 1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날 공연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제1번', 에이토르 빌라로부스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제2번', 보루슬라프 마르티누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3개의 마드리갈', 요한 할브르센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파사칼리아'로 무대를 채운다.

임지영은 한국인 최초 벨기에 엔셀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로 금호음악인상, 한국언론인연합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등을 수상했다. 매슈 리프먼은 WFMT 시카고 선정 클래식 음악가 '30세 미만의 30인'에 선정된 유일한 비올리스트로 프림로스,



윤홍천



임지영



매슈 리프먼

임지영·매슈 리프먼 공연, 11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윤홍천, 13일 리사이틀 무대

테티스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 '에이버리 피셔 상'을 수상했다. 일반 4만원, 학생 3만원. 문의 062-360-8437.

윤홍천 피아니스트는 13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리사이틀 무대를 마련한다. 주제는 '비엔나의 저녁'.

이날 공연은 슈베르트의 '우아한 왈츠 D.779', '피아노 소나타 13번 D.664', '몰 위에서 노래함 제2번', '세레나데 제7번'을 무대에 올린다. 이어 슈베르트의 왈츠 '비엔나의 저녁 제6번', 클라라 슈만의 '그대의 눈 속에서 제9번', '여기저기 비밀스런 속삭임이 제10번'을 리스트가 편곡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클라라 슈만의 '스케르초 제2번 Op.14', 로베르트 슈만의 '유모레스크 Op.20'도 준비돼 있다.

윤홍천은 알렉산드로 카사그라데, 상하이 등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독일 바이에른주 문화부장관에게서 '젊은 예술가상', 룩셈부르크의 '피치카토 슈퍼소닉 어워드', 독일 '에코클래식상' 등을 수상했다. 전석 5만원. 문의 062-360-8437.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를 이야기하는 1박2일 '예술난장'

13일 윤림제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한다' 현경 교수·지역 예술인, 다양한 장르로 참여

지난해 8월 뉴욕 유니언 광장과 타임 스퀘어 광장에서 '광주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오월 아리랑-광장 프로젝트'가 열렸다. 화가, 작곡가, 현대무용가, 연주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예술가 그룹 '잡 아트프로젝트 MSC'이 준비한 드로잉 퍼포먼스와 무용, 음악 연주 등이 어우러진 기획으로 작가들은 대형 천에 걸개 그림 형식의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며 광주 이야기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뉴욕 행사에서 '귀한 인연'을 만났다. 신학자이자 여성운동가인 현경 유니언신학대 종교교수다. 당시 프로젝트 기획을 맡았던 주홍 작가와 현경 교수는 '광주에서 '광주'를 테마로 예술난장을 열어보자'고 의기투합했고 그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오는 13일 오후 5시부터 1박 2일간 광주시 동구 윤림동 윤림제에서 열리는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한다' 행사는 특별한 형식이나 주제 없이 자유롭게 광주를 이야기하고 예술로 풀어내는 장(場)이다.

현경 교수는 뉴욕 행사 당시 "광주에서 온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싶다"며 한결같이 달려왔고, 행사 마지막 날 첼시 K&P 갤러리 미술관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도 참여했다. 그녀는 "노예제도가 합법일 때 예술가들은 불법으로 그 문제점을 표현했고, 홀로코스트가 합법일 때 그건 아니다"라고 불법으로 표현했다. 예술이 언제나 합법 안에서만 존재했다. 예술가들이 불법으로 표현한 것들은 세상의 의식을 확장시켰고, 그게 바로 예술가들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광주 학생에서 태어난 현경 교수는 "전세계 지성이 대한민국 역동성과 민주화에 주목하는데, 그 근본정신에 불을 지핀 게 바로 광주 정신 아니겠냐"며 '오월광주 정신'을 높이 평가했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뉴욕에 동행했던 예술가들 뿐 아니라 올해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던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 아트 참가자들,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로 광주를 이야기한다.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오월 아리랑' 행사에 참여한 현경 교수(왼쪽에서 세번째)와 광주의 아티스트들.

올해 민주광장에서 20m 걸개그림을 그렸던 김봉준 작가(신화박물관)는 여신 신화를 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흥성담 작가는 걸개그림을 그린다. 또 무용가 흥신자·화가 샷세 부부를 비롯해 고근호, 노정숙, 주라영, 이선영, 리일현, 김창호, 김치준, 박문준 등 한국화, 서양화, 사진, 도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또 국근섭, 다음 윤희매, 최용무 명인 김용목, 김태훈 상식, 연극인 이담금, 작곡가 승지나, 현대무용가 나은영, 작가 한경숙·한울비(거문고&우쿨렐레) 등도 함께 한다. 그밖에 이무용 전남대문화전문대학원장, 김순홍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 무등공부방 회원들도 참여한다.

한바탕 예술난장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황정운 감독이 다큐멘터리로 촬영할 예정이다.

기획을 맡은 주홍 작가는 "지성과 야성을 갖춘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잘 하는 '짓거리'를 하면서 늘면되는 프로젝트"라며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6791-805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무심한 풍경... 얽히고 설킨'

김제민 초대전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용)이 6월 한 달간 서양화가 김제민 초대전을 병원 1동 로비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무심한 풍경... 얽히고 설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도심에서 자라는 초목을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딱딱하고 인공적인 지형지물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야생식물과 도시조형물과의 대비를 통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새삼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이다. '얽히고 설킨'이란 제목의 작품은 콘크리트 건물과 철조망 울타리 틈새에서 가지를 뻗는 나무와 잡초의 모습을 그려 강한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TVZoom 작작보고'는 거실 소파에 리모컨을 옆에 두고 편히 앉아있는 듯한 풀을 의인화한 작품이다.

김 작가는 "주변에서 접한 여러 식물들을 보며 떠올랐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했다"며 "식물들의 선과 형태들이 만들어내는 조형을 표현했고, 식물에 감정을 이입해 해석적으로 그린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제민 작가는 고려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미술대학과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늦깎이 화가로 현재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TVZoom 작작보고'

전남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해 매달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문의 062-220-5104. /김미은 기자 mekim@

영상으로 만나는 '노부스 콰르텟 콘서트' 12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콘서트 영상 '노부스 콰르텟 콘서트'가 12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상영된다.

광주문화재단 'SAC on Screen(썩 온 스크린)'의 일환으로 상영되는 이번 작품은 지난해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 특별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다.

관객들은 레스피기의 '도리아 선법의 사중주 Op.144', 드 보르작의 '현악사중주 12번 F장조 Op.96 '아메리카',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6번 F장조 Op.80'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노부스 콰르텟'은 바이올린 김재영·김재영, 비올라 김규현, 첼로 문웅위로 구성된 팀으로 독일의 현악사중주 에이전시 '치멘아워'에 소속돼 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 현악사중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대원음악상 신인상, 예술의전당 실내악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670-7934.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특허공법

특허공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내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6년무상A/S/정기점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SINCE 1982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